



IMF 연차총회를 통해 드러난 위기 극복을 위한 5가지 난제

최원 선임연구원

- IMF 연차총회 폐막 이후 데이비드 보스코(David Bosco)¹⁾는 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의 칼럼을 통해 IMF 연차총회가 유럽의 재정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5가지 이유를 제시함.
 -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IMF 연차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이 논의됨.
 - IMF 연차총회 직후 데이비드 보스코는 총회 참석자들의 갈등과 혼란을 지적하면서 IMF 연차총회를 통하여 드러난 위기 해결의 난제(難題)들을 언급함.

- 데이비드 보스코는 위기 해결의 5가지 난제로 심리적 위축, 국가 간 이익 상충 및 계획 부재, 중국의 무관심, 미국과 유럽의 갈등, IMF 총재의 능력 부족을 제시함.
 - 그는 위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초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경우 비관적인 시각으로 일관함과 동시에 심각성을 재확인 하는 태도만을 취하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그는 IMF 연차총회에 참석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위기 해결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가별 성명서 내용은 합의한 내용과 차이를 보이는 등 국가 간 분열과 갈등에서 비롯된 계획성 없는 대처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함.
 - 특히, 유로존 국가의 경우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등 재무구조가 건실한 국가와 재무구조가 부실한 국가 간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실정이며 합의 도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언급함.
 - 한편, 유럽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중국이 유럽 국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으나 기대와 달리 중국은 계획이 없다고 단언하고 자국 경제 안정에 주력할 뜻을 밝혔는데, 그는 이것 또한 빠른 위기 극복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함.

1) 워싱턴 아메리칸대학 교수이자 국제문제 분석가임.

- 그는 과거 경제위기 시 공조 체제를 유지하였던 미국과 유럽이 이번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등에 있어서 이견을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함.
 -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유럽 정부부채 문제에서 촉발된 위기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오스틴 굴스비 전 백악관 경제보좌관도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유럽의 대처가 문제가 있다고 비난함.
 - 이에 반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미국경제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미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하는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미국 간의 갈등도 심화될 조짐이 나타남.
- 마지막으로 그는 현 IMF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위기 상황 속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장 균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하나, 전문적인 식견 부족으로 회원국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는 실패하였다고 지적함.

(Foreign Policy 등, 9/26)